

국어 어휘의 변천 연구(8)

김태곤*

〈 목 차 〉

1. 서론
2. 語形 소멸형
2. 語形 분화형
4. 語形 변화형
5. 語形 유지형
6. 결론

• 요약 : 15세기 한국어의 어휘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고찰한 것으로, 15세기 국어인 '거리다', '구치다', '갓', '젓', '겨집', '고티다', '곡뒤', '걸다(漚)', '걸다(掛)', '겨레' 등의 어휘가 후에 변화하는 모습을 어형에 중심을 두어 살폈다. 그리하여 이들 어휘를 소멸형, 분화형, 변화형, 유지형으로 나누어 이들 단어의 어형과 의미의 변화된 양상을 고찰했다.

주요 용어 : 어휘, 어형, 의미

1. 서론

세상 만물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언어도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 움직이며 변화를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국어와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국어 표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논문

* 제주대 교수

은 15세기에 쓰였던 국어 어휘가 그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어휘 변천에 관한 연구다.

어휘의 변화는 그 양상도 여러 가지인데, 어형이 변하는 것, 의미가 변하는 것, 그리고 이들 모두가 변하는 것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길로 보아 알 수 있는 어형에 기준을 두어, ① 語形이 消滅된 것, ② 語形이 分化된 것, ③ 語形이 變化된 것, ④ 語形이 維持된 것으로 나누어, 해당 어휘의 어형이나 의미의 변화과정을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런 유형에 따른 어휘를 선정하여 고구하였는데, 어형이 소멸된 것으로 '거리다', '구치다'를, 어형이 분화된 것으로 '갓', '갯'을, 어형이 변화된 것으로 '겨집', '고티다', '곡뒤'를, 어형이 유지된 것으로 '걸다(濃)', '걸다(掛)', '겨레'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이 논문에서 인용된 용례의 문헌과 그것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 順)

- <簡辟> 簡易辟瘟方諺解 1587
- <警民> 警民編 1579(重刊本), 1658(改刊本)
- <敬釋> 敬信錄諺釋 1796
- <關明> 關聖帝君明聖經 1855
- <救簡> 救急簡易方 1489
- <救方> 救急方諺解 1466
- <救補> 救荒補遺方 1660
- <救荒> 救荒撮要 1554
- <國漢> 國漢會語 1895
- <金剛> 金剛經諺解 1464
- <金 三> 金剛經三家解 1482
- <南宮> 南宮桂籍 1876
- <南明> 南明集諺解 1482
- <臘藥> 諺解臘藥症治方 英祖朝
- <老諺> 老乞大諺解 1670
- <楞> 楞嚴經諺解 1462
- <同文> 同文類解 1748

- <東續> 東國續 綱行實 1617
- <東醫> 東醫寶鑑 湯液編 1613(活字本), 1754(完營重刊本)
- <痘經> 痘瘡經驗方 1663
- <痘要> 診解痘瘡集要 1608
- <杜重> 分類杜工部詩診解 1632(重刊本)
- <杜初> 分類杜工部詩診解 1481(初刊本)
- <馬諺> 馬經抄集診解 仁祖朝(1623-1649)
- <明義> 明義錄診解 1777
- <蒙老> 蒙語老乞大 1741
- <蒙解> 蒙語類解 1768
- <無冤> 增修無冤錄診解 1792
- <朴新> 朴通事新釋診解 1765
- <朴諺> 朴通事診解 1677
- <方言> 方言類釋 1778
- <方藥> 方藥合編 1884
- <讎老> 讎譯老乞大 16세기초
- <讎朴> 讎譯朴通事 16세기초
- <讎小> 讎譯小學 1517
- <法華> 妙法蓮華經診解 1463
- <辟瘟> 辟瘟新方 1653
- <分瘟> 分門瘟疫易解方 1542
- <三綱> 三綱行實圖 1481
- <三譯> 三譯總解 1703
- <釋> 釋譜詳節 1447
- <釋重> 釋譜詳節 1561(重刊本)
- <石千> 石峰千字文 1583
- <禪家> 禪家龜鑑診解 1579(普賢寺本), 1610(松廣寺本)
- <宣內> 內訓 1573(內賜本)
- <宣小> 小學診解 1587(宣祖版)
- <續三> 續三綱行實圖 1514(原刊本), 17세기초(重刊本)
- <松江> 松江歌辭 1747
- <新續> 東國新續 三綱行實圖 1617
- <新語> 捷解新語 1676
- <十九> 十九史略診解 1772
- <兒學> 兒學編 1907
- <診救> 診解救急方 1608
- <女範> 女範 英祖朝

- <女四> 女四書諺解 1736
- <呂約> 呂氏鄉約諺解 1518
- <譯解> 譯語類解 1690
- <五倫> 五倫行實圖 1797
- <伍倫> 伍倫全備諺解 1721
- <倭解> 倭語類解 18세기
- <龍歌> 龍飛御天歌 1447
- <圓> 圓覺經諺解 1465
- <月釋> 月印釋譜 1459
- <月千> 月印千江之曲 1447
- <類合> 新增類合 1576
- <恩重> 恩重經 1563(松廣寺本), 1592(其方寺本), 1741(南高寺本), 1796(龍珠寺本)
- <隣語> 隣語大方 正祖朝
- <字釋> 字典釋要 1909
- <種德> 種德新編諺解 1758
- <註千> 註解千字文 1804
- <重捷> 重刊捷解新語 1781
- <胎産> 諺解胎産集要 1608
- <太上>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852
- <漢清> 漢清文鑑 英祖朝(1724-1776)
- <訓蒙> 訓蒙字會 1527(東京大學本)
- <訓解> 訓民正音 1446(解例本)

2. 語形 소멸형

1) 거리다

‘거리다’는 중세국어에서 다음 용례와 같이 ‘건지다’, ‘救濟하다’, ‘거르다’의 뜻을 보유하고 많이 쓰였으나, 이 단어가 17세기부터는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소멸된 것으로 생각된다.

(1) 건지다

人天 고기를 거리샤되(漚人天魚)(金 : 5:25)

撈는 므레 거릴 씨오(月釋 序8)

(2) 救濟하다

拯은 거러낼씨오(月釋 序9)

어즐하야 므르는 일흔 性을 거리시려(拯昏迷之失性)(法華 序16)

救하야 거러(救濟)(法華 2:134)

목 물롬 거릿고져 호되(欲濟渴)(法華 4:91)

싸혀 거리샤(拔濟)(金 : 4:37)

群生을 거러 濟渡하리오(拯濟群生)(金 : 5:47)

(3) 거르다(漚)

힌출조발밥 반 되를 글힌 므레 즈마 듯다가 거러내야(救簡 1:2)

즈의 거러 앓고(漚去瘳)(救簡 6:88)

2) 구치다

'구치다'는 중세국어에서 다음 용례와 같이 '굽히다·마지못하다'와 '傷心케 하다'의 의미로 많이 쓰였다.

(1) 굽히다. 마지못하다

淨居士의 말 듣고 東山을 구쳐 내야 프니(月千 154)

하녀ㄴ론 분별하시고 하녀ㄴ론 깃거 구쳐 니러 절하시고(釋 6:3)

世尊을 맞나스브며 증계 남기 들어늘 구쳐 뵈습고(月千 178)

太子스 法은 거쫘마를 아니하시는 거시니 구쳐 프르시리이다(釋 6:24)

(2) 傷心케 하다.

늘그시닛 ㅼ들 구췌미 어려운 전츠로 ㅎ노라(難傷老人意故忍之耳)(宣內 2下7)
벼스른 ㄴ고 직되 맞디 못ㅎ야 ㅼ슴 구쳐 분별ㅎ며 저플 ㅼ들 머거(位重才不充
戚戚懷憂畏)(翻小 6:27)
주시기 잠간 신고ㅎ여도 어미는 ㅼ슴플 구치눗도다(男女暫辛苦長使母心酸)(思
重 10)(松廣寺本, 其方寺本)

위의 예 ②의 밑줄 친 '구치다'는 16세기 후반기에 쓰였던 것인데 18세기 중엽에 간행된 『恩重經』 南高寺本(1741)에서도 다음의 용례처럼 '구치다'로 표기되고 있다.

즈식이 잠간 신고ㅎ여도 업이는 ㅼ슴플 구치눗도다(男女暫辛苦長使母心酸)(恩
重 10)(南高寺本)

그러나 18세기 말에 간행된 『恩重經』 龍珠寺本(1796)에서는 이 말이 사라지고 아래와 같이 '슬프게 하다'로 언해했다.

아들과 ㅼ이 잠간 신고ㅎ거늘 기리 어미 ㅼ슴으로 ㅎ여곰 슬프게 ㅎ도다(恩重
19)(龍珠寺本)

또한 20세기 초에 나온 『恩重經』 강지회본(1912)에서도 '구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아들과 ㅼ이 잠간 신고ㅎ면 기리 어미로 ㅎ여곰 마음이 신산케 ㅎ는도다(恩重
12)(강지회본)

앞의 『恩重經』 南高寺本은 16세기에 간행된 松廣寺本이나 其方寺本과 약간의 표기법만 제외하고 책의 체제나 문장, 어휘, 음운 등이 같다. 특히 '△'이 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南高寺本이 국어의 변천된 모습을 반영하지 않은 판본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南高寺本에서 나타나

는 단어 '구치다'는 그 당시 현실 언어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말이 그 전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3. 語形 분화형

1) 갖

단어 '갖'은 중세국어에서는 다음 용례와 같이 '가죽'(皮革)의 의미와 '살갓'(皮膚)의 의미가 있었고, '表面'의 의미도 있었다.

(1) 가죽(皮革)

엿의 갖爲狐皮(訓解 終聲)
 獲은 가츠로 밍ᄃᆞᆫ 物을 못글시오(楞 10:70)
 鹿皮는 사스ᄃᆞᆫ 가치라(月釋 1:16)
 남진의 락는 가치오(男鞮革)(宣內 3:2)
 갖 혁 : 革(訓蒙 下9)

(2) 皮膚

흔갓 갖과 썬왜로소니(空皮骨)(杜初 21:5)
 갓과 슬래 주게라(皮肉死)(杜初 25:26)
 갓 피 : 皮(訓蒙 下9)
 갓과 슬래 보드랍고 뵈뵈ᄃᆞᆫ샤(月釋 2:40)

(3) 表面

똥 가츰 조티 못ᄃᆞᆫ 거시라(地皮未淨也)(楞 7:11)

그러나 16세기 말에는 '皮革'의 뜻을 가진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쓰이기 시작한 이래(가족 피 : 皮(類合 上26)), 17세기에는 이 단어가 활발히 쓰여 어형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족' 형

17세기에 어형 '가족'이 '皮革'의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다음과 같다.

- 베히며 가족 벗기기를 몸을 오로 호되(割剝遍身)(新續 烈7:45)
- 승냥의 가족(豹皮)(東醫 湯液篇1:57)
- 범을 그리매 가족은 그려도 싸 그리기 어렵고(畫虎畫皮難畫骨)(朴診 下40)
- 가족띠(革帶)(譯解 上:45)
- 블근 뭇 가족을 질고(胎產 31)
- * 거른 가츠로 밉그론 几 이실식(鳥皮几在)(杜重 21:5)

위의 용례 「杜詩諺解」 중간본에서처럼 17세기에 어형 '갓'이 쓰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杜詩諺解' 초간본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 말이 「諺解胎產集要」에서는 '가족'으로 표기되었음이 특이하다.

18세기에도 어형 '가족'이 계속되는데 다음과 같다.

- 가족(皮子)(同文 上:17), (漢清 149d)
- 이치 縣 자히 다 가족이 업슨디라(如今 縣地都沒有皮了)(伍倫 5:27)
- 가족 피 : 皮(倭解 上:18)

이 단어가 19세기 말 문헌에 '가족(皮革)(國漢 p.4)'으로 표기되었고, 다음과 같이 20세기 초에 어형이 '가족' 또는 '가족'으로 나타났지만 1938년에 간행된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는 어형이 '가족'으로만 나타났다. 이 말은 대상을 주로 동물에게만 한정해서 쓰이고 있다.

- 가족 피 : 皮(字典 下10)

가죽 피 : 皮(兒學 1:2)

가죽 : 動物의 皮革.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가죽 : '가족'에 同.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가죽 : 동물의 몸의 거죽을 싸고 있는 물건. (文世榮, 「朝鮮語辭典」)

‘살가족’ 형

17세기에도 ‘皮膚’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형은 중세국어에서와 같이 ‘갓’이 계속 이어진다. 다만 아래 「朴通事諺解」에 나오는 용례처럼 ‘皮膚’의 의미로 어형이 ‘가족’으로도 표기됐다.

안자소매 슬햇 가치 듯거우미 잇느니(坐有胛肉)(杜重 3:50)

슬히 누르고 가치 설지고(肉黃皮皺)(杜重 3:50)

* 언 닛가족이 다 히여덜 거시니(凍而皮都打破了)(朴諺 中30)

18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 단어가 역구개음화한 것이 나오는데 단어 ‘갓’이 ‘皮膚’의 뜻으로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갓타 짜여디고 피 닛거나(皮破血出)(無冤 1:24)

20세기 초에는 ‘살가족’이라는 말이 사전에 실려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나 짐승의 몸 거죽을 싸고 있는 거죽’을 뜻하는 단어다.

살가족 : 皮膚.(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이 단어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풀이되어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데, 이 말이 다음의 ‘살갓’하고 다른 점은 ‘살가족’은 대상이 사람과 짐승에 쓰이는 단어이고, ‘살갓’은 주로 사람에게만 쓰이는 단어다.

살가족 : 살에 붙은 가죽. 皮膚. (文世榮, 「조선어사전」)

살가족 : 사람이나 짐승의 몸 거죽을 싸고 있는 껍질.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살갓' 型

중세국어 단어 '갓'에서 유래한 '살갓'이라는 단어는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었지만,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는 '살가족'의 옛말로 '살갓'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고 '살갓'이란 단어도 실어 놓았다.

살갓 : '살가족'의 옛말.
살갓 : 살의 가죽. 皮膚面.

위에서 '살갓'의 풀이를 '살의 가죽'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주로 사람의 것만을 지칭한다는 면에서 단어 '살가족'과 차이가 있다.

살갓 : 살가족의 겉면. 주로 사람의 것만 지칭한다.(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 '갓'에 대해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갓(皮革. 皮膚. 表面)(15세기)>

- ①가족(皮革)(16세기말)>가족, 가죽(皮革)(17세기)>가죽(皮革)(1938년)(현재도 같음)
- ②갓(皮膚)(16세기)>살가족(皮膚)(1920년)>살가족(皮膚:사람이나 짐승의 것을 지칭)(1938년)(현재도 같음)
- ③살갓(皮膚)>살갓(皮膚:주로 사람의 것을 지칭)(1938년)(현재도 같음)

2) 갓

단어 '갓'은 중세국어에서 '겉, 가죽(表面)'과 '껍질(表皮)'의 의미로 쓰였는데 다음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다.

(1) 겉. 거죽(表面)

열본 썩 7튼 찻 거치 나니(月釋 1:43)
찻 거치 업거늘 찻 살히 나니(月釋 1:43)

(2) 껍질(表皮)

것 바순 조박룻(脫粟)(杜初 15:5)
것 맞기고(去皮)(教簡 1:10)
복상화 나뭇 흰 거츨 글혀(桃白皮煮)(教方 上:28)
것과 빗보골 앓고(去皮臍)(教方 上:38)
버들 거츨 하나저그나(楊柳皮不以多少)(教方 下:13)
느릅나뭇 거츨로 더퍼 흰 띠 그리오디(以榆皮蓋疔掩於傷處)(教方 下:73)
나뭇 것과 님과로 옷하야 님고(釋重 3:33)

‘겉’ 型

의미 ‘表面’을 나타내는 어형 ‘겉’은 15세기에 이어 계속 쓰였는데 18세기의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래 용례를 보면 표기는 八終聲法에 의거하여 ‘것’으로 나타냈지만 『重刊捷解新語』에서는 ‘겉티’로 표기되어 終聲이 ‘치’에서 ‘티’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것 꾸미다(外飾)(同文 上:32)
옷 것(表面)(同文 上:56), (漢淸 11:6)
것만 녹다(浮面微化)(漢淸 1:31)
書契를 내옴소 겉티 쓴 거술 보옴새(重捷 1:21)

그러나 이 단어의 단독형의 표기는 19세기에도 여전히 ‘것’으로 하고 있고,

것(表)(國漢 p.132)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이다.

것 표 : 表(字典 F61)

것 : '거죽'に同じ.(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거죽 : 表面.(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그러나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된 이후에 간행된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八終聲 표기법을 버리고 원음을 밝혀 적는 원칙에 따라 이 말을 '것'으로 표기하던 것을 '겉'으로 표기하여 실어 놓았다.

겉 : '거죽'①②와 같음.(文世榮, 「朝鮮語辭典」)

거죽 : ①속과 반대되는 곳. 표면. ②안과 반대되는 곳. 외면.(文世榮, 「朝鮮語辭典」)

'겉질' 型

15세기에 이미 '表皮'의 뜻을 가진 어형 '겉질'이 생겨나 다음과 같이 쓰이기 시작했다.

조희와 나뭇 겉질조쳐 먹다가(離以茶紙樹皮)(綱 忠14)

龍葵 불휘 혼 줌 조희 시서 겉질 밧기니와(教方 F2)

이 말이 이어 16세기에도 다음과 같이 쓰였고,

느름 겉질을(楡皮)(教荒 5)

겉질 벗겨 겨 두 량(簡辟 12)

17세기에도 계속되었고, 이 당시에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거플'이란 단어도 쓰였다.

뽕나무 불회 겹질(桑皮)(諺救 下2)
 측불회를 조히 씨서 겹질 벗기고(葛根淨洗去皮)(救補 3)
 겹질이 열위(皮薄)(痘經 44)
 * 칼호로 대 거품을 긁느니 긁고(如以刀刮竹皮)(馬諺 上19)

18세기의 용례는 다음과 같이 변하지 않았다.

겹질 갑 : 甲(倭解 下39)

19세기에는 이 말의 경음화된 어휘가 「國漢會語」(1895)에서 쓰였다.

겹질 갑 : 甲(註千 19)
 양귀비 겹질(粟殼)(方藥 18)
 가죽나무 불회 겹질(栲根)(方藥 30)
 겹질(皮質)(國漢 p.132)

20세기에도 이 말이 경음화된 '엽질'로 표기하였고,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는 지금처럼 '겹질'로 표기하여 실어 놓았다.

엽질 갑 : 甲(兒學 上8)
 엽질 : '엽풀'に同じ.(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겹질 : ① 동·식물의 거죽을 싼 물건. ② 열매의 거죽을 싼 물건. ③ 모든 물체의 거죽을 싼 물건.(文世榮, 「朝鮮語辭典」)

지금까지 단어 '겻'에 대하여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겻(겻, 거죽, 겹질)(15세기)>

- ① 겻, 겻(表面)(18세기)>겻(表面)(19세기)>겻(表面)(1938년)(현재도 같음)
- ② 겹질(表皮)(15세기)>겹질(表皮)(19세기말)>엽질(表皮)(20세기초)>겹질(표피)(1938년)(현재도 같음)

4. 語形 변화형

1) 겨집

중세국어에서 단어 '겨집'은 '女子'를 뜻하는 평어이면서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婦人'과 '妻'의 의미도 나타내는 다의어였다.

(1) 女子

女子는 겨지비라(月釋 1:8)

婢는 겨집조이라(釋 13:19)

越人 겨지의 불근 마의 짓고(越女紅裙濕)(杜初 15:30)

겨집 녀 : 女(訓蒙 上31), (類合 上17)

스나히와 겨집이 둥인 든니미 잇다 아니흐얏거든(男女非有行媒)(宣小 2:45)

(2) 婦人

婦人은 겨지비라(月釋 21:198)

寡婦는 남진 업슨 겨지비라(楞 6:111)

使君이 스스로 겨지비 잇느니(使君自有婦)(杜初 15:30)

다른 겨지비 물기리 흐느니(只是婦人打水)(讖老 上36)

(3) 妻. 아내

如來 太子時節에 나물 겨집 사막사니(釋 6:4)

머리터롤 믹자 남진 겨지비드외요니(結髮爲夫妻)(杜初 8:67)

겨집 처 : 妻(訓蒙 上31), (類合 上19)

저제 든니며 비니 그 겨집은 아디 몰흐거늘(行乞於市其妻不識)(宣小 4:31)

계집과 첩을 디접흐고(待妻妾)(呂約 4)

17세기에도 이 단어가 중세국어와 같은 의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어

형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續三綱行實圖」 중간본과 「警民篇」 개간본에서 어형 '겨집'이 '계집'으로 표기되어 쓰였다. 아래에 예문을 제시한다.

(1) 女子

越人 겨지비 불근 2의 짓고(越女紅裙濕)(杜重 15:30)
 겨지비 처엄 난 월슈(紅鈿)(東醫 湯液篇1:32)(活字本)

(2) 婦人

使君 1 스스로 겨지비 잇느니(使君自有婦)(杜重 15:30)
 겨지비 하나홀 조차 종신희 겨시니(婦人從一而終)(東續 烈20)
 스느히 정괴 츠니과 겨집 혈괴 쇠희니는(男子精冷婦人血衰)(胎產 1)
 겨지비 월경슈(婦人月水)(東醫 湯液篇1:32)(活字本)

(3) 妻

슈군 당효창의 겨집이라(水軍鄭孝昌妻也)(新續 烈2:47)
 스노 억취 겨집이라(私奴億壽妻也)(新續 烈6:86)
 머리터리를 미자 남진 겨지비드외요니(精髮爲夫妻)(杜重 8:67)
 계집이 날오더 었디 내 남진의 청덕을 더러이료(其妻何敢累吾夫清德)(續 孝26)
 계집은 모로미 지아버를 순종하야(妻須順夫)(警民 2)(改刊本)

18세기에는 이 말이 '겨집'으로 표기된 것도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집'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의미는 앞서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1) 女子

분되 너 중도 겨집이 잇닷다(元來你和尙也有老婆)(伍倫 5:22)
 收生婆(희산시기는 늘근 계집이라)(無冤 2:1)
 계집의 싸면 김고(恩重 4)(龍珠寺本)
 계집의 처엄 난 월슈(紅鈿)(東醫 湯液篇1:32)(完營重刊本)

계집을 마르치디 아니하니(女四 1:6)
계집 너 : 女(倭解 1:42)

(2) 婦人

엇디 혼 겨집을 이과디 못하리오(婦人)(五倫 3:17)
혼 등이 념의 계집을 도적하여(一箇和尚偷別人家的媳婦)(朴新 1:35)
계집의 월경슈(婦人月水)(東醫 湯液篇1:32)(完營重刊本)
게으른 계집(懶婦)(漢清 7:56)

(3) 妻

맛당하다 그딴의 겨집여(女範 2 현녀 제상어처)
혹 겨집을 스스집의 두어 더러운 일이 드러나 들니여(敬釋 20)

19세기에는 이 말이 어형은 '계집'으로만 쓰였고, 의미는 '女子'와 '婦人'의 뜻만 보이는데 이들의 의미는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와 부인을 낮잡아 부르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1) 女子

계집으회(女兒)(國漢 p.385)

(2) 婦人

맛춤 혼 계집을 파는 지 잇거늘(適有人賣一婦)(太上 1:27)

'妻'의 뜻은 한자어 '妻'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그 채 붓그리며(其妻慚)(太上 1:7)

이 말이 19세기에 이어 20세기 전반기에도 다음 사전에서 보여주듯이 여자와 부인에 대해 낮잡아 일컫는 말로 쓰였다.

계집 : ① 女子の卑稱. ② 卑賤なる者の妻の卑稱.(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계집 : ① 부녀를 낮추어 일컫는 말. ② 천한 사람의 아내를 낮추어 일컫는 말.
(文世榮, 「朝鮮語辭典」)

'계집'에 대해 현재 이용되는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는데 20세기 전반기와 다른 점을 보여준다. 즉 앞에서는 두 번째 풀이에서 천한 사람의 아내를 낮추어 일컫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아내를 낮잡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계집 : ①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②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지금까지 이 단어에 대하여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15세기에 '겨집'으로 나타나던 어형이 17, 18 세기에는 '겨집'과 '계집'으로 나타나고, 19세기 이후에는 '계집'으로만 쓰였다. 의미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女子, 婦人, 妻' 등으로 쓰였으나,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는 '女子'와 '비천한 사람의 妻'를 낮잡아 부르는 의미였고, 현재는 '女子'와 '妻'를 낮잡아 부르는 말로 쓰인다.

겨집(女子, 婦人, 妻)(15세기)>겨집, 계집(女子, 婦人, 妻)(17세기)>계집(女子와 婦人의 卑稱)(19세기)>계집(女子와 妻의 卑稱)(현재)

2) 고티다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 단어 '고티다'는 '改造하다 · 改作하다, 治療하다, 마음 등을 바로잡다' 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1) 改造하다. 改作하다

田制를 고티시니(大正田制)(龍歌 73)
 새 그를 고토틀 못고 내 기리 입노라(新詩改龍自長吟)(杜初 16:14)
 고틀 門을 묻즈오사(問 上 二之 12)
 人定으로서 니러 옷 고티고(釋 6:30)
 고틀 기 : 改(類合 上4), (石千 8)

(2) 治療하다

시고 장석병 고틀되(治時氣瘴疫)(分瘟 8)
 또 브레 데닐 고틀되(又方治湯潑火燒)(救方 下13)
 湯火애 데닐 고틀되니(治湯火傷)(救方 下14)
 므쇼 고틀기(麟朴 上42)
 병 고틀 료 : 療(類合 下18)

(3) (마음 등을) 바로잡거나 바꾸다.

하늘 므스물 뒤 고틀스 불리(維天之心 誰改誰易)(龍歌 85)
 五百外道の 그르 아논 이를 므르쳐 고틀시닐(月釋 1:9)
 모든 므스문 썰리 문 고틀리로다(月釋 1:51)
 므스문 수비 고틀려니와(月釋 1:51)
 我執을 고틀리니(治於我執)(問 上 二之 184)

이 말이 17세기에서는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의미는 변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어형은 구개음화되어 '고치다'로도 「諺解救急方」(1608)이나 「禪家龜鑑諺解」(1610), 「馬經抄集諺解」(仁祖朝)에서 나타난다. 「杜詩諺解」중간본(1632)에서는 ㄷ, ㅌ 음이 구개음화된 어례가 상당수 발견되는 바, 남부방언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17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¹⁾ 중세국어에서 많이 발견되는 '마음 등을 바로잡거나 바꾸다.'의 예도 17세

1) 안병희(1957), "重刊杜詩諺解에 나타난 구개음화에 대하여", 「일석 이희승선생 화갑기념논총」, pp.331-340.

기 국어에서 있었을 것이나 자료 부족으로 未見이다.

(1) 改造하다. 改作하다

다 고쳐 商舖티 문허리로다(禪家 1:15)(松廣寺本)
 우리 나라는 禮 1 돈돈하여 흥 번 덩흥 후는 고티다 아니호니(新語 3:24)
 이제 고텃는가 못 호엿는가(如今修起了不曾)(老諺 1:23)
 官渡에 또 술엇 자취를 고토투(官渡又改轍)(杜重 2:36)
 새 그를 고토투 못고 내 기리 입노라(新詩改罷自長吟)(杜重 16:14)

(2) 治療하다

고치는 법은(治法)(諺教 下32)
 열흘 너무면 고치지 아니호여도 즈연 듯나니라(過得十日不治自愈)(諺教 下30)
 모름이 고치지 말라(醫)(馬諺 下123)
 고티다(醫了)(林諺 上39)
 병 고티다(醫病 醫治)(譯解 上63)

18세기에서는 '고티다'도 나타나지만 구개음화된 '고치다'가 일반적으로 쓰였고 '곳치다'로도 표기되었다. 그리고 아래 예 ④에서 볼 수 있듯이 '고티다'가 '다시하다, 거듭하다'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었음이 「松江歌辭」에서 보여 주었는데, 이는 松江의 독특한 문체로 「松江歌辭」에서만 보여 준다.

(1) 改造하다. 改作하다

흥 드리 문허겅드니 이지 고텃는나 고치지 못호얏는나(蒙老 2:9)
 세 번을 곳쳐 닥그되 마춤내 쓰지 아니호고(明義 卷首下50)
 우리 나라는 禮 돈돈하여 흥 번 덩흥 후는 고티는 일은 업스오니(重捷 3:30)
 修理를 시작호옵더니 고칠 동안은 다른 티 主人 잡아 일습네(隣語 1:28)
 비들도 줄이나 고치시과자 問安호시더이다(重捷 5:18)
 성명을 곳치고 산둥에 드러가(變姓名人唐石山)(五倫 2:60)
고칠 기 : 改(倭解 下36)

(2) 治療하다

데 증싱 고치기 너이 흥느니라(他價醫頭口)(朴新 1:41)
온갖 병의 열나는 증들을 고티고(一切病發熱等症又治)(臘藥 1)
술노 드온 병이오면 술을 먹어 고치오며(萬言詞)

(3) (마음 등을) 바로잡거나 바꾸다.

듀나 고치지 아니커늘 왕이 이에 치시다(紂不悛王乃伐之)(十九 1:49)
허물을 고터 긴 거슬 조출씨니라(改過從長)(女四 2:14)
얼너는 두 가장을 곳치지 아니흥느니라(女四 4:17)
허물을 알고 고치지 아니며(敬釋 3)
날마다 그른 줄을 알면 날마다 허물을 곳치고(敬釋 33)

(4) 다시하다. 거듭하다

汲長孺 風彩를 고터 아니 불 게이고 … 正陽寺 眞歇豪 고터 올라 안즌 말이(松江 1:3)

19세기에는 어형이 '고치다' 또는 '곳치다'로만 표기되어 쓰였다.

고칠 기 : 改(註千 8)
고칠 경 : 更(註千 24)
세상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업스리오마는 곳치면 성현되고(世人孰無過改之爲聖)
(關明 29)

이 말에 대해 20세기 중반에 간행된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는 아래처럼 여러 의미가 실려 있으나 중세국어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고치다 : ① 새로 좋게 하다. 성하게 만들다. ② 갈아 내다. 수리하다. ③ 잘못 된 것을 바로잡다. ④ 뜻을 변하다. ⑤ 바꾸다. ⑥ 병을 낫게 하다.

지금까지 단어 '고티다'에 대하여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티다(改造하다 · 改作하다. 治療하다. 마음 등을 바로잡거나 바꾸다.)(15세기)>고티다, 고치다(17세기)>고치다(18세기~현재)

3) 꼭뒤

중세국어에서 단어 '꼭뒤'는 '뒤통수의 한복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는데,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평음이었으나, 지금은 어형이 '꼭뒤'로 경음화되어 쓰인다.

(1) 뒤통수의 한복판

꼭뒤와 등의 나거든(發腦發背)(教簡 3:41)
꼭뒤 우목흔 디를(分癩 22)
꼭뒤(後腦)(訓蒙 上:28 腦字註)

이 말은 17세기에도 중세국어와 다름없이 쓰였다.

꼭뒤(腦後)(譯解 1:32)

이 말이 18세기에는 어형의 변화를 일으켜 경음화하였는데 '꼭뒤, 꼭뒹'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말이 의미가 분화하여 '꼭대기, 頂上'의 의미로도 쓰였다. 이는 의미 간 유사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람의 뒤통수나 산의 꼭대기가 위치상 의미가 비슷하므로 다의어가 된 것이다.

(1) 뒤통수의 한복판

꼭뒤에 종괴 나 의약과 기도호여(敬釋 57)
꼭뒤 내미다(後奔顛)(漢清 146a)

구레 쪽딤 거리(搭腦)(漢淸 134a)
쪽딤에 털(頂毛)(漢淸 420c)

(2) 쪽대기

되스쪽뒤(山頂)(方言 1:10)

이 말을 19세기에는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없으나 아래 예처럼 현대국어와 같은 표기를 하고 있다.

쪽뒤(後腦)(國漢 p.139)

이 말에 대해 20세기초에 나타난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조선총독부 편 「朝鮮語辭典」(1920)에는 단어 '쪽뒤'에 대해 '뒤쪽지'라는 의미로도 () 속에 풀이하여 놓았는데, 이는 지금 남부방언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쪽뒤 덩 : 頂(兒學 1:2)
쪽뒤 : 後頭部, (뒤쪽지)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이 말이 20세기 중반 이래 현재까지는 의미가 '뒤통수의 한복판' 외에 '활의 도고지가 붙은 뒤'의 뜻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에 쓰였던 '쪽대기'의 의미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별도로 표제어(쪽뒤₂)를 하여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였다.

쪽뒤 : ① 뒤통수의 한복판. ② 활의 도고지가 붙은 곳. (文世榮, 「朝鮮語辭典」)
쪽뒤₁ : ① 뒤통수의 한가운데. ② 활의 도고지가 붙은 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쪽뒤₂ : '쪽대기'의 방언.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 '쪽뒤'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꼭뒤(뒤통수의 한복판)(15세기)>꼭뒤, 꼭딤(뒤통수의 한복판, 꼭대기)(18세기)>꼭뒤(19세기)>꼭뒤(後頭部, 뒤꼭지)(1920)>꼭뒤(뒤통수의 한복판, 활의 도고지가 붙은 곳)(1938)

5. 語形 유지형

1) 걸다(濃)

중세국어에서 단어 '걸다'는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흙이 기름지다.'의 뜻과 '액체가 진하다.'의 뜻을 보유한 다의어였다. 이러한 '걸다'의 어형은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1) 흙이 기름지다(沃)

橘洲엿 바툼 지즈로 건 짜히로다(橘洲上田仍膏腴)(杜初 9:31)
건 짜해 빅성이 직조롭디 물흙은(沃土之民不材)(宣小 4:45)

(2) 액체가 진하다(濃)

소리 쉬며 고히 막고 추미 걸며(聲啞鼻塞痰稠)(教簡 2:14)
건 초애(濃醋)(教簡 6:77)
고아 걸어든(熬爲膏)(教簡 6:89)
걸에 무라(濃調)(教方 上13)
물 혼 되 브어 달한 건 즙을 머그면(濃)(簡辭 22)

이 말이 17세기에도 어형과 의미가 변하지 않고 사용된 것을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는데, 한의학서에서 '액체가 진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1) 축이 기름지다(沃)

橘洲엿 바튼 지즈로 건 짜히로다(橘洲土田仍膏腴)(杜重 9:31)

(2) 액체가 진하다(濃)

인삼을 걸게 달여(人蔘濃煎)(診救 15)
이 즈초 혼 냥 싸하라 달혀 걸거든 거지호고(紫草 兩剉熬成膏)(痘要 上27)
도티 기름과 도흔 흰 술을 걸게 달혀 브르라(猪脂白蜜石熬膏塗之)(痘要 下64)
걸거든 물 혼 되 브어(爲膺入水 一羹)(胎產 49)
코해 건 코히 흐르고(鼻流濃涕)(馬諺 下56)
콧곰게 걸게 브르면(濃塗鼻竅中)(辟新 16)

이 말이 18, 19세기 문헌에서는 용례가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실지 사용은 17세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액체가 진하다(濃)

건 쓰물(泔水底子)(漢清 14:39)

이 말이 20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거다 : 土地肥ゆ. (걸다).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걸다 : '거다'에 同. (土同)
걸다 : ①기름지다. 토지가 살찌다. ②액체가 묽지 않다. 맑지 않다. ③입이 더럽다. (文世榮, 『朝鮮語辭典』)

위의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 보면 단어 '걸다'가 전래로 가지고 있던 ①, ②의 의미 외에 '입이 더럽다.'라는 의미가 생성되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현재는 의미가 확대되어 더 많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국어사전을 보자.

- 걸다 : ①흙이나 기름 따위가 기름지고 양분이 많다.
 ②액체 따위가 내용물이 많고 진하다.
 ③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
 ④말씨나 숨씨가 거리낌이 없고 푸지다.
 ⑤('~게'의 꼴로 쓰여) 푸짐하고 배부르다. ○ 잔칫집에 가서 걸게 먹고 왔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 '걸다'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걸다 (①흙이 기름지다. ②액체가 진하다)(15세기)>걸다(①,② 외에, '③입이 더럽다.'가 추가)(1938)>걸다(①,②,③ 외에 '④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가 추가)(현재)

2) 걸다(掛)

현대국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 '걸다'(掛)는 중세국어에서도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1) 어떤 물건이 걸쳐 있도록 하다(掛)

- 부르매 거니라(掛壁)(金 4:13)
 축오술 羅鉢에 거로니(羅鉢掛羅尼)(杜初 15:10)
 부르매 걸라(壁子掛着)(誠老 1:25)
 걸 래 : 掛(掛舍 546)

(2) 빗장을 지르다(鎖)

쇠 건 玄關을 다 부러라(金鎖玄關虛棄掛)(法華 下73)

(3) 걸리다. 머무르다(滯)

變易生死에 순직 거니(尙滯變易生死)(法華 3:171)

엇데 자취에 걸어뇨(何滯迹耶)(法華 3:55)
空애 득마며 寂에 걸어(沈空滯寂)(圓 上 二 之 38)
가시 건티(教簡 6:1)

(4) 얹매다(拘)

文字에 거디 아니홀씨오(不拘文字也)(金剛 38)

위의 예에서 ③은 현대국어에서는 피동 의미의 단어 '걸리다'가 이런 의미를 담당하여 쓰이고 있지만, 15세기에서는 단어 '걸다'가 이런 의미로 직접 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예 ④도 '걸다'가 피동의 의미인데 19세기 문헌인 「國漢會語」(1895)에서는 '걸이다'(拘)(p.131)로 나타나는데 피동접미사 '-이-'가 삽입된 것이다.

이 단어가 17, 18, 19세기에다 다양한 의미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문헌에서 용례를 찾기가 힘들었다. 다만 중세국어에서 자동사 '걸리다'(滯)와 '얹매다'(拘)의 의미로 쓰였던 것은 근대국어에서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얹매다'(拘)의 의미는 19세기에 '걸이다'란 단어로 나타났다.

<17세기>

어떤 물건이 걸쳐 있도록 하디(掛)

벽틈애 걸라(壁子 掛着)(老諺 上:22)
天山엔 일 화를 거랏도다(天山 掛事)(杜重 5:41)
춤술 羅薛에 거로니(絛衣 掛羅薛)(杜重 15:10)

<18세기>

어떤 물건이 걸쳐 있도록 하디(掛)

거다(掛着)(蒙解 下45)
걸 패 : 掛(倭解 下38)
각지손 거다(人指 勾玆)(漢清 4:41)

걸어 물러온 국슈(掛麵)(漢淸 12:33)

<19세기>

걸다(掛之)(國漢 p.381)

이 말이 20세기에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걸다 : '거다'에 同。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거다 : ①物을 掛く. ②門扉를 掛く. ③議論을 仕掛く.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걸다 : ①물건에 달아서 늘어머리다. ②물건에 잡아매다. ③올가미를 쓰이다.
④줄을 매다. 줄을 치다. ⑤먼저 때리다. 시비를 시작하다. ⑥놀이판에서
돈을 태어놓다. ⑦약조금을 주다. ⑧높이 달다. ⑨일하다. ⑩문을 잠그
다. ⑪말을 건넨다. ⑫말을 부치다. (文世榮, 「朝鮮語辭典」)

위의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 '걸다'는 20세기 중
반에 벌써 여러 가지 의미를 보유하며 다의어를 쓰였다. 이러한 의미의 추
가가 현재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아래 소개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걸
다'에 대한 풀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단어 '걸다'에 대해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걸다(어떤 물건이 걸쳐 있도록 하다. 빗장을 지르다. 걸리다. 얽매다)(15세기)>
걸다(어떤 물건이 걸쳐 있도록 하다. 빗장을 지르다)(근대국어)>걸다(어떤 물건
이 걸쳐 있도록 하다. 빗장을 지르다. 의논 대상으로 삼다)(1920)>걸다(①벽이
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②자물쇠, 문고리
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③기계나 도구 따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다. ④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⑤기계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
다. ⑥다른 사람이나 문제 따위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다. ⑦돈 따위를 계약이
나 내기의 담보로 삼다. ⑧의논이나 토의의 대상으로 삼다. ⑨어떤 상태에 빠지
도록 하다. ⑩앞으로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 ⑪목숨, 명예 따
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로 하다. ⑫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
을 하다. ⑬전화를 하다. ⑭다리나 발 또는 도구 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넘
어뜨리려는 동작을 하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현재)

3) 겨레

단어 '겨레'는 다음 용례와 같이 16세기말 문헌인 宣祖版 「小學諺解」에서 나타나는데 '친족, 가문'의 의미로 쓰였다.

그 시절 옛 가문과 오란 겨레들히 다 能히 이긋디 못흐더라(當時故家舊族皆不能若是)(宣小 6:75)

우리 집이 본디 가난한 겨레라(吾家本寒族)(宣小 6:132)

이 말이 앞서 나온 「翻譯小學」(1517)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문'이란 다른 말로 쓰였던 것이다.

이 시절 오란 가문들히 다 이리 못흐더라(當時故家舊族皆不能若是)(翻小 9:81)

우리집이 본디 가난한 가문이라(吾家本寒族)(翻小 10:34)

이 말은 17세기에도 '친족'의 의미로 쓰였다.

이리 다른 겨레에 도라 보낼 거지라(可歸他族)(新續 烈1:2)

가래 원당으로서 서로 통간호면(親屬相好)(警民 22)(改刊本)

18세기에는 이 말의 사용이 활발하여 다음 용례와 같이 많이 나타나는 데 어형이 '겨리'로도 많이 나타나나 실제 발음에서는 '겨레'와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의미는 여전히 '친족, 종친'의 뜻으로 쓰였다.

이 말을 갖추며 친구를 부러(敬釋 12)

겨레와 벗들이 년루홀가 저허(姻)(五倫 5:13)

아들의 사돈과 겨레며 아의 사돈과 겨레를(明義 卷首下58)

이 말이 종리되느니(蒙老 5:1)

친척과 거위과(蒙老 6:16)

친척(親戚)(蒙解 上9)

그리 겨리문 칠식(養群族)(種德 上:29)

이리 겨리문(譯 3:13)

겨리 족 : 族, 거리 척 : 戚(倭解 1:13)
 거리(親戚), 먼 거리(遠族)(同文 1:11)
 거리들이 모다 제호고(女範 4)
 거리 단타(族黨衆多)(漢清 5:39)
 종당(거리)(敬釋 22)

19세기에도 이 말의 어형은 '겨레'와 '거리'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18세기와 같고, 의미도 같다.

겨레를 좇즈며(訪親)(南宮 4)
 겨레 사람과 친흔 벗을(宗親)(太上: 大文解3)
 겨레 친 : 親, 거리 척 : 戚(註千 35)
 거리 종 : 宗(註千 26)

20세기에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살펴보자.

겨레 족 : 族, 겨레 척 : 戚(兒學 1:1)
 겨레 : 일가, 친척, 족속, 민족. (文世榮, 「朝鮮語辭典」)
 겨레 : ①한 조상을 같이 받드는 자손들의 무리, ②같은 동포나 민족.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겨레 : 한 조상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무리. (이희승, 「옛센스 국어사전」)
 겨레 : ①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 ②겨레붙이.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겨레'에 대한 위의 사전풀이를 보면, 1938년에 간행된 文世榮의 「조선어사전」에서 이 말에서 '민족'이라는 의미가 등장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단어 '겨레'가 20세기 중엽에는 '친척'의 의미와 더불어 '민족'의 의미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위에서 現用되는 국어사전을 참고할 때 '민족'의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단어 '겨레'에 대하여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겨레(親族)(16세기)>겨레, 거리(親族)(18세기)>겨레(親族, 民族)(1938년)>겨레(民族)(현재)

6. 결 론

이상과 같이 국어 어휘 변천을 ① 어형이 소멸된 것(거리다, 구치다), ② 어형이 분화된 것(갓, 갖), ③ 어형이 변화된 것(겨집, 고티다, 곡뒤), ④ 어형이 유지된 것(걸다:濃, 걸다:掛, 겨레) 등 어형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어형과 의미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거리다(어형 소멸형)

'거리다'는 중세국어에서 '건지다', '救濟하다', '거르다'의 뜻을 보유하고 많이 쓰였으나 이 단어가 17세기부터는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소멸된 것으로 본다.

2) 구치다(어형 소멸형)

'구치다'는 중세국어에서 '굽히다·마지못하다'와 '傷心케 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였으나 17세기에는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18세기 중엽의 문헌에서 쓰인 것이 나타나 이 문헌은 16세기말 문헌의 중간본이어서 그 당시 언어현상을 실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중세국어까지 쓰이고 그 후에는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갖(어형 분화형)

'갓'은 15세기에 '皮革, 皮膚, 表面'의 의미로 쓰였으나 의미에 따라 어형이 분화되어 다음과 같이 '가죽', '살가죽', '살갓'의 단어로 사용된다.

갓(皮革, 皮膚, 表面)(15세기)》

- ① 가죽(皮革)(16세기말)》가죽, 가죽(皮革)(17세기)》가죽(皮革)(1938년)(현재도 같음)
- ② 갓(皮膚)(16세기)》살갓가죽(皮膚)(1920년)》살가죽(皮膚:사람이나 짐승의 것을 지칭)(1938년)(현재도 같음)
- ③ 살갓(皮膚)》살갓(皮膚:주로 사람의 것을 지칭)(1938년)(현재도 같음)

4) 갓(어형 분화형)

‘갓’은 15세기에 ‘表面’과 ‘表皮’의 의미로 쓰였으나 의미에 따라 어형이 분화되어 다음과 같이 ‘겉’과 ‘껍질’의 단어로 쓰인다.

갓(겉, 거죽, 껍질)(15세기)》

- ① 갓, 겉(表面)(18세기)》갓(表面)(19세기)》겉(表面)(1938년)(현재도 같음)
- ② 껍질(表皮)(15세기)》껍질(表皮)(19세기말)》껍질(表皮)(20세기초)》껍질(표피)(1938년)(현재도 같음)

5) 겨집(어형 변화형)

겨집(女子, 婦人, 妻)(15세기)》겨집, 계집(女子, 婦人, 妻)(17세기)》계집(女子와 婦人の 卑稱)(19세기)》계집(女子와 妻의 卑稱)(현재)

6) 고티다(어형 변화형)

고티다(改造하다·改作하다, 治療하다, 마음 등을 바로잡거나 바꾸

다.)(15세기)>고티다. 고치다(17세기)>고치다(18세기)(현재도 같음)

7) 꼭뒤(어형 변화형)

꼭뒤(뒤통수의 한복판)(15세기)>꼭뒤, 꼭되(뒤통수의 한복판. 꼭대기)(18세기)>꼭뒤(19세기)>꼭뒤(後頭部. 뒤꼭지)(1920)>꼭뒤(뒤통수의 한복판. 활의 도고지가 붙은 곳)(1938)(현재도 같음)

8) 걸다(濃)(어형 유지형)

걸다(①흙이 기름지다. ②액체가 진하다)(15세기)>걸다(①,② 외에, '③입이 더럽다.'가 추가)(1938)>걸다(①,②,③ 외에 '④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가 추가)(현재)

9) 걸다(掛)(어형 유지형)

걸다(어떤 물건이 걸쳐 있도록 하다. 빗장을 지르다. 걸리다. 얽매다)(15세기)>걸다(어떤 물건이 걸쳐 있도록 하다. 빗장을 지르다)(근대국어)>걸다(어떤 물건이 걸쳐 있도록 하다. 빗장을 지르다. 의논 대상으로 삼다)(1920)>걸다(①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②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③기계나 도구 따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다. ④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⑤기계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다. ⑥다른 사람이나 문제 따위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다. ⑦돈 따위를 계약이나 내기의 담보로 삼다. ⑧의논이나 토의의 대상으로 삼다. ⑨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⑩앞으로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 ⑪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로 하다. ⑫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다. ⑬전화를

하다. ⑭다리나 발 또는 도구 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동작을 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현재)

10) 겨레(어형 유지형)

겨레(親族)(16세기) > 겨레, 겨리(親族)(18세기) > 겨레(親族, 民族)(1938년) > 겨레(民族)(현재)